조계종 종법령 광폭 제·개정 추진

중앙종무기관 입법계획… 포교원 등 각 부서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광폭의 종법령 제·개정 추진에 나설 전망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오심)은 최근 '불기2563(2019) 중앙종무기관 입법계획'을 종단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입법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포교원이다. 포교원은 유관 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교법(3월)과 신도법(11월)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포교법 전면개정의 골자는 1990년대 명시된 포교의 개념과 방향을 현대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다. '불타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고' 등의 개념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라는 현대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보살의 서원으로 교화한다' '동사섭의 정신을 사회속에 구현한다' 등 구체성이 떨어져 선언적인 의미로 굳어진 포교지침을 삭제하고, 포교의 의무를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외에 포교원 조직체계 개편을 명시, 국별 업무분장을 수정하는 한편 매주 교무회의를 통해 간단한 논의사항을 다루는 내용도 담긴다. 특히 현재 군종특별교구로 이관돼 포교원 업무가 아닌 군불교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그동안 종법에 담기지 않은 전법단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어린이지도사, 명상지도사 등의 자격 근거를 명시해 전문인력 활동에 소속감을 불어넣는 작업도 이뤄진다.

올해 말 전면개정을 목표로 논의되는 신도법의 경우에는 교육체계를 비롯해 신도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또한 포교원의 지원체계와 신도단체들의 정체성도 정리할 방침이다.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은 원활한 교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포교원은 종법 외에도 각 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 전법중심도량, 전법단 등 종령을 일부 개정해 제도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고, 신도 유관 종령의 종법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는 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승려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은 교육법과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법에 연수의 범위를 승랍 10년, 20년, 25년 이내로 구분한 것에 30년차까지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힌다는 게 골자다. 이미 2015년부터 25~30년차에 대한 법계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2017년부터 종사법계 연수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서다.

사업부는 부서 명칭을 '사찰경제부'로 수정하는 총무원법 일부개정에 나선다. 단순한 종단수익사업 부서가 아닌 교구와 사찰의 경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서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부서 출범 4년차에 맞춰 '종단 산업재산권 육성' '사찰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종단 내외 제안사업 심의' 등의 역할을 명시해 전문 행정지원 부서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문화부는 산사세계유단 등재 이후 통합 보호관리와 활용을 보증할 '한국의 산사통합관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을 계획으로 세웠다. 산사관리단은 기존 등재추진위원회를 전환해 구성될 예정이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경 출범할 전망이다. 또한 성보보존법 시행령을 제정, 성보대장에 대한 절차와 내용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별지양식 규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박물관 변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불일치 사항 해소를 위해 '성보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종령과 연계된 유물관리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종법개정은 중앙종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입법계획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각 부서는 중앙종회 유관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종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종무기관 입법계획

포교법 · 신도법(전면개정)
- 법 조항 현대어로 재해석
- 포교 · 신도 의무 구체화 작업

교육법(일부개정)
- 25~30년차 승려 연수 명시

총무원법(일부개정)
- 사업부 명칭 '사찰경제부'로

문화부 종령(제정)
- 산사통합관리단 설립 · 운영
- 성보관련 세부시스템 정립

포교법 · 신도법 전면개정 눈길
교육원 25~30년차 승려 연수
사업부는 '사찰경제부'로 전환
문화부 '산사관리 종령' 계획

올해 조계종 7개 본사 주지 선거

총림 3곳 포함, 선운사부터 23일 산중총회

올해 조계종 7개 교구본사가 주지 선거를 앞두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본사주지 임기만료를 앞둔 교구는 제4교구본사 월정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제25교구본사 봉선사다. 이 중 총림인 수덕사와 해인사, 통도사는 방장 추천으로 차기 주지를 결정한다. 4개 교구본사는 단일 후보일 때 산중총회 성원과 관계없이 무투표 당선되며, 2인 이상 후보일 때 산중 고유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가장 먼저 주지 임기가 만료되는 교구본사는 수덕사다. 현 주지 정묵 스님 임기는 3월 18일 만료된다. 하지만 현재 수덕사는 방장이 공석인 상태로 차기 주지 선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월 23일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날 차기 방장 추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선운사는 차기 주지 선출 산중총회를 2월 23일로 확정했다. 현 주지 경우 스님 임기는 4월 3일 만료된다. 선운사 안팎에서는 현 주지 경우 스님과 한국문화연수원장 재안 스님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주지 영배 스님은 5월 29일,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8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총림을 제외한 교구본사로는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8월 12일,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이 10월 8일 임기 만료다. 해당 본사들은 주지 임기만료일 전 30~50일 사이 산중총회를 소집한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내년 1월 29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12월 중 산중총회를 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법진 스님, 선학원 이사장 직무정지 될까

창건주 · 분원장 48人,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최종 징역6월형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은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 48명이 2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법인 현직이사인 현호 스님(지원정사)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선학원 현직이사가 법진 스님의 자격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법진 스님은 2016년 12월 15일 선학원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고, 2019년 1월 24일 이사회 결의로 사직서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위임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은 것일 뿐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학원 이사장의 지위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형태이므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법진 스님의 이사 임기가 2019년 1월 2일 만료돼 다음날 중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됐지만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또한 당시 법원 최종 판결 이후인 만큼 선학원 정관상 임원 선출 규정에 해당하는 '덕망 높은 승려'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2017년 서울 인사동서 열린 퇴진 촉구 집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와 함께 승려관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적, 자격정지,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사장이 실권자인 이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선학원 이사장은 종교단체의 지도자이므로 도덕성을 갖추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며 "승려를 대표하는 자로서 성도덕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할 시 전체 종교활동에 손상을 입혀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국민연금 지원 신청인원 화엄사 '최다'

55세 미만 재적승 중 44%
송광사 · 선운사가 뒤이어

조계종 2018년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통계결과 24개 교구본사 중 가장 많은 재적승이 신청한 곳은 제19교구 화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제21교구 송광사와 제24교구 선운사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이 높아 재적승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최초로 개최한 '2019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발표됐다. 종단 지도자 포럼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자를 비롯해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스님들이 조계종단 안팎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승려복지제도를 주제로 발제하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이날 '승려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통계를 중심으로 출가수행자들이 국가 · 종단 복지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승려복지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조계종 비구 · 비구니 스님 중 16.6%인 1,907명의 스님이, 55세 미만 비구 · 비구니 스님 중 32.1%가 보험료 지원 신청을 했다. 교구본사별로는 55세 미만 기준 화엄사(44.1%)-송광사(41.1%)-선운사(39.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음사(10.5%)-신흥사(12.7%)-봉선사(23.1%) 순으로 신청 비율이 낮았다.

덕문 스님은 "교구본사주지를 비롯한 본사종무소, 재적대중스님들의 승려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통계수치라고 판단된다"며 "천주교와 원불교 성직자들은 교단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은 2011년 조사 시 가입률이 약 18%로 노후준비에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덕문 스님은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승려복지회에서 스님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승려복지제도를 스님들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자 포럼은 이외에도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AI(+생명공학)와 종교', 이영경 동국대 과학기술대학 조경학과 교수가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발제했다.

윤호섭 기자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불교의식(범음, 범패)교육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본원은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으며 영산재를 계승 및 발전 유지하고
후진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의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아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

수료 과정 및 강주

모집반		교육내용	강주	요일	시 간	모집조건	교육기간
초급반	기본이론 기초과정	기본사물, 기본예불 불공 및 시식	호산스님	화, 목	오후2시~오후5시	모든 종단 승려	6개월
중급반	상주권공 I 기초과정	시련 / 대령 / 관욕 상단 / 시식 / 작법기초	혜령스님	수, 금	오후2시~오후5시	초급반 이수자	6개월
상급반	상주권공 II 전문과정	상주권공재의식 전문과정 작법 고급과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화, 목	오후2시~오후5시	중급반 이수자	1년 과정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모든 종단의 승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원의 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장
- 전형일정: 2019년 1월 ~ 3월 5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 1로 53 (금호동) 법 륜 사
- 입학문의: 법륜사 종무소 062-655-7444,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 (법진스님) 010-9606-3981
  교육원 교학처장 (명휴스님) 010-7941-0017

2019년 1월

사) 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부설 교육원